



라티노 정체성과 의식 조사 분석¹⁾

폴 테일러(외)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라티노 인구는 50,729,570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6.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35,204,480명으로 12.5%였던 것에 비교하면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라티노 집단은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의 오바마가 보여주는 유화적인 이민정책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라티노 집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의 리서치 결과 분석을 전제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라티노와 히스패닉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 옮긴이.

미국 정부가 히스패닉 혹은 라티노라는 용어를 스페인어권 국가에 뿌리를 둔 미국인을 범주화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사십년이 지난 지금, 라티노에 대한 전국규모의 조사는 이러한 용어들이 라티노들에 의해 전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1%에 달하는 대다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모의 조국에 일치시키고 있으며, 라티노와 히스패닉과 같은 범종족적 라벨을 선호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더욱이 조사 응답자들은 2대 1이상의 비율로(69% 대 29%) 미국 내 5

1) Paul Taylor, Mark Hugo Lopez, Jessica Hamar Martínez and Gabriel Velasco, "When Labels Don't Fit: Hispanics and Their Views of Identity", Pew Hispanic Center, 2012.



천만 이상의 라티노들이 공통의 문화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응답자들은 스페인어에 대한 강력하고 공통된 연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82%에 달하는 라티노 성인은 자신이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95%)은 다음 세대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히스패닉은 또한 미국인과 공통의 정체성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약 절반에 달하는 47%는 그들 스스로를 전형적인 미국인과 매우 다른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단지 21%만이 '미국인'이라는 용어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묘사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두 가지 수치와 관련해, 미국에서 태어난 히스패닉이(현재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의 48%에 달하는) 이주 히스패닉보다 다른 미국인이나 미국에 대해 더 강력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대다수 라티노는 미국의 삶이 조국의 삶보다 더 낫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87%에 달하는 라티노는 이

주자 히스패닉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체성에 대한 라티노의 태도, 언어 사용패턴, 핵심적인 가치, 그리고 미국과 가족의 조국에 대한 관점 등을 분석했다. 이것은 퓨 히스패닉 센터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2011년 9월 11일부터 동년 12월 7일까지) 1,220명의 라티노에 대한 전국 규모의 이중 언어 조사에서 나온 정보에 기초했다.

히스패닉과 정체성

대부분의 히스패닉은 정체성을 묘사할 때, 라티노나 히스패닉과 같은 범종종적 용어보다는 자기 가족의 조국을 더 선호한다. 51%는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부모의 조국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조국과의 일체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멕시코인, 쿠바인, 도미니카공화국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4%만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라티노 혹은 히스패닉을 사용한다고 답했고, 21%는 미국인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대부분은 히스패닉과 라티노라는 용어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두 용어를 구별하는 사람들은 히스패닉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다. 즉 응답자 중 51%는 두 개의 용어 중에서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선호하는 것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 33% 대 14%의 비율로 히스패닉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대부분의 히스패닉은 미국 내 히스패닉 집단 사이에 공통의 문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히스패닉 응답자 69%는 미국 내 라티노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29% 만이 미국에서 히스패닉들이 공통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 NOTE: Please answer BOTH Question 5 about Hispanic origin and Question 6 about race. For this census, Hispanic origins are not races.

5. Is this person of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 No, not of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 Yes, Mexican, Mexican Am., Chicano
- Yes, Puerto Rican
- Yes, Cuban
- Yes, another Hispanic, Latino, or Spanish origin — *Print origin, for example, Argentinean, Colombian, Dominican, Nicaraguan, Salvadoran, Spaniard, and so on.* ↘

--	--	--	--	--	--	--	--	--	--	--	--	--	--	--	--	--	--	--	--

6. What is this person's race? Mark one or more boxes.

- White
- Black, African Am., or Negro
- American Indian or Alaska Native — *Print name of enrolled or principal trib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Asian Indian | <input type="checkbox"/> Japanese | <input type="checkbox"/> Native Hawaiian |
| <input type="checkbox"/> Chinese | <input type="checkbox"/> Korean | <input type="checkbox"/> Guamanian or Chamorro |
| <input type="checkbox"/> Filipino | <input type="checkbox"/> Vietnamese | <input type="checkbox"/> Samoan |
| <input type="checkbox"/> Other Asian — <i>Print race, for example, Hmong, Laotian, Thai, Pakistani, Cambodian, and so on.</i> ↘ | <input type="checkbox"/> Other Pacific Islander — <i>Print race, for example, Fijian, Tongan, and so on.</i> ↘ | |

--	--	--	--	--	--	--	--	--	--	--	--	--	--	--	--	--	--	--	--

- Some other race — *Print race.* ↘

--	--	--	--	--	--	--	--	--	--	--	--	--	--	--	--	--	--	--	--

미통계국 인구조사표

대부분의 히스패닉은 자신이 미통계국(US Census Bureau)이 정한 기본적인 인종 범주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종과 관련해, 51%의 라티노는 자신의 인종을 ‘다른 인종’으로 표현하거나 ‘히스패닉/라티노’라고 스스로 적고 있다(인구조사표에서 6번째 항목은 인종을 묻는 것으로, 인종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다섯 번째는 ‘some

other race'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인종을 기입할 수 있다). 반면 36%는 자신의 인종을 백인이라고 정의했고, 3%는 흑인으로 정의했다.

라티노가 자신을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거의 절반인 47%는 전형적인 미국인이라고 답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45%는 전형적인 미국인과 매우 다르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태어난 라티노가 미국에서 태어난 라티노보다 전형적인 미국인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낮다 (34% 대 66%).

미국의 경험

히스패닉은 자기 집단이 적어도 미국에서 다른 소수자 집단만큼은 성공했다고 답하고 있다. 대부분의 히스패닉은(55%) 자기 집단이 미국 내 다른 인종과 종족 그룹만큼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약 22%는 덜 성공했다고 간주했고, 17%는 보다 더 성공이었다고 답했다.

미국은 많은 의미에서 모국보다 더 나아 보이지만, 모든 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티노 성인 가운데 87%는 조국보다 미국에서 성취할 기회가 더 많다고 답했다. 약 72%는 아이들을 기르는데 미국이 더 좋다고 답했고, 69%는 미국에서 빈곤층이 더 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44%는 도덕적 가치가 보다 더 양호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족적 유대의 강도에 관해서는 39%가 조상의 조국이 더 나았다고 말했고, 33%는 미국이 더 좋다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히스패닉 이주자는 미국에 다시 이주할 것이라고 답했다. 79%의 히스패닉 이주자는 또다시 이주가 필요하다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 온 이유를 물었을 때, 55%의 히스패닉 이주자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답했고 24%는 가족 문제로 왔다고 대답했다.

언어 사용: 영어와 스페인어

대부분의 히스패닉은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세대가 진행되면서 영어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의 38%가 스페인어 능통자, 38%가 이중언어 사용자, 그리고 24%가 영어 능통자라고 답하고 있다. 미국 태생 히스패닉 중에서는 51%가 영어 능통자이다.

히스패닉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87%의 히스패닉은 성인 히스패닉 이주자가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히스패닉은 미국의 히스패닉 미래 세대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95%의 히스패닉은 미래의 히스패닉 세대가 스페인어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75%),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20%) 답하고 있다.

사회적·정치적 태도

일반 시민보다 히스패닉은 노력의 가치를 더 믿고 있다. 75%의 히스패닉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데 반해, 이렇게 말한 일반 시민은 58%에 불과하다.

몇몇 사회적 이슈에 대해 라티노는 일반 시민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라티노(59%)와 일반 시민(58%)은 거의 비슷하게 동성애가 사회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낙태에 대해서 히스패닉은 일반 시민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관점을 취한다. 히스패닉의 51%는 대부분 혹은 모든 경우에 낙태는 불법이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 중에서 그 비율은 41%이다.

종교는 일반 시민보다 히스패닉 이주자의 삶에서 더 중요하다. 거의 69%의 히스패닉 이주자는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라티노 중에서 이렇게 답하는 비율은 49%이다. 일반 시민이 삶에서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58%이다.

라티노의 정치적 관점은 일반 시민보다 진보적(liberal)이다. 30%의 라티노는 자신의 정치적 관점이 진보적 혹은 매우 진보적이라고 답하는데, 일반 시민 중에서는 21%가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이성훈 옮김]

이성훈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